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5. 12. 31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꺼내든 당정…금융권 "은행이 범죄 피해 책임지라니"

한국경제 https://zrr.kr/BUHEHb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본격 추진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이나 일률적인 '묻지마 배상'이 이뤄지면 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

중도상환수수료 1년 만에 원복?…iM뱅크 인상카드 꺼냈다

SBS Biz https://zrr.kr/DRaFSd

iM뱅크가 새해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폭 올리며 지난 1월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했다가 1년 만에 사실상 원상복구에 나선 셈
iM뱅크는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으로, 업계에선 대출 규제 국면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주담대 규제 강화 · 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이투데이 https://zrr.kr/CMsexr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

가계대출 막히자…해외로 눈 돌리는 인뱅

데일리안 https://zrr.kr/echRSS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대출 고객 수 증가가 자산 성장으로 직결되던 구조가 약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규제로 대기업 대출이 제한된 인뱅들은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과 해외 송금 등을 검토

한투 IMA 개인 2만명 몰렸다…1인당 평균 4300만원 투자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fOJpLF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3일 모집을 완료한 국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에 개인 투자자 2만239명이 참여해 총 8638억원을 투자해 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4300만원
IMA 가입 고객의 기존 투자 경험을 분석한 결과, 국내 채권 투자 경험 보유 비중이 47.3%로 가장 높았고 펀드 투자 경험도 일반 투자자 평균 대비 높아

올해 코스피 수익률 75.6% 20개국 중 1위…시총 1515조↑

뉴시스 https://zrr.kr/ldjyHG

연초 코스피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지난 4월9일 연저점(2293포인트)을 기록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제고, 불공정거래 근절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세로 돌아서며 올해 코스피 등락률은 75.6%

2027년부터 기본자본킥스비율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매일경제 https://zrr.kr/Y8cMob

2027년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쌓아둬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50%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으로 보유하라는 것

4세대 실손 손해율 150% 육박…내년엔 보험료 7.8% 오른다

헤럴드경제 https://zrr.kr/SePpFK

2026년 실손 보험료는 올해보다 평균 7.8% 인상… 최근 5년간 실손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9%보다 1.2%p 낮은 수준이나, 지난 5년간 누적된 인상률은 46.3%
금융당국은 지속할 수 있는 실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5세대 실손 출시를 추진 중으로, 5세대는 내년 1월 중 출시될 전망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한다

서울경제 https://zrr.kr/AFYcb5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안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포함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지분율이 이 기준을 웃돌고 있어 방안 도입 시 지배구조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 교환 추진 중인 네이버-두나무 합병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

美 '클래리티법' 통과땐 ETF 자금 유입 가속…비트코인 '중장기 상승' 이어갈 듯

서울경제 https://zrr.kr/rVkUqC

가상화폐 시장이 기관투자가의 비중 확대로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
특히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이 기관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해 중장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